

성서는 우리에게 꿈이 실현된 사례를 꽤 많이 제공해주지. 나도 나 나름으로,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나는 꿈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떤 지성의 존재가 우리에게 건네는 경고라는 것을 수차례 경험해봤다네. 만약 인간 이성의 깨달음을 능가하는 사물의 이치를 가지고 싸우거나 옹호하고 싶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일세.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이 단지 신의 이성을 본뜬 상(像)에 불과하다면, 무릇 인간은 비밀스럽게 감춰진 수단으로 자신의 의도를 세상 끝까지 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주를 지배하는 지성의 존재가 같은 목적을 위해 그와 비슷한 수단을 사용해서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나? 한 친구가 편지로 자기 친구를 위로하는데, 그 편지는 여러 왕국을 가로질러, 여러 나라의 증오와 반감 사이를 떠돌다가,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와서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준다네. 그렇다면 어째서 순결을 지키는 지고의 존재께서는, 어떤 은밀한 경로를 통해, 오로지 그분에게만 자신의 믿음을 바친 한 신량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실 수 없는 것일까? 내적 작용을 통해 당신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쉼 없이 활동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의지를 실현하시기 위해 어떤 외적 징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왜 꿈을 의심하는가? 삶은, 술하디술한 덧없고 허무한 기도(企圖)로 가득 찬 삶은, 한낱 꿈과는 다른 무엇인가?

어쨌든, 내 가여운 친구들의 꿈은 곧 실현되었다네. 풀은